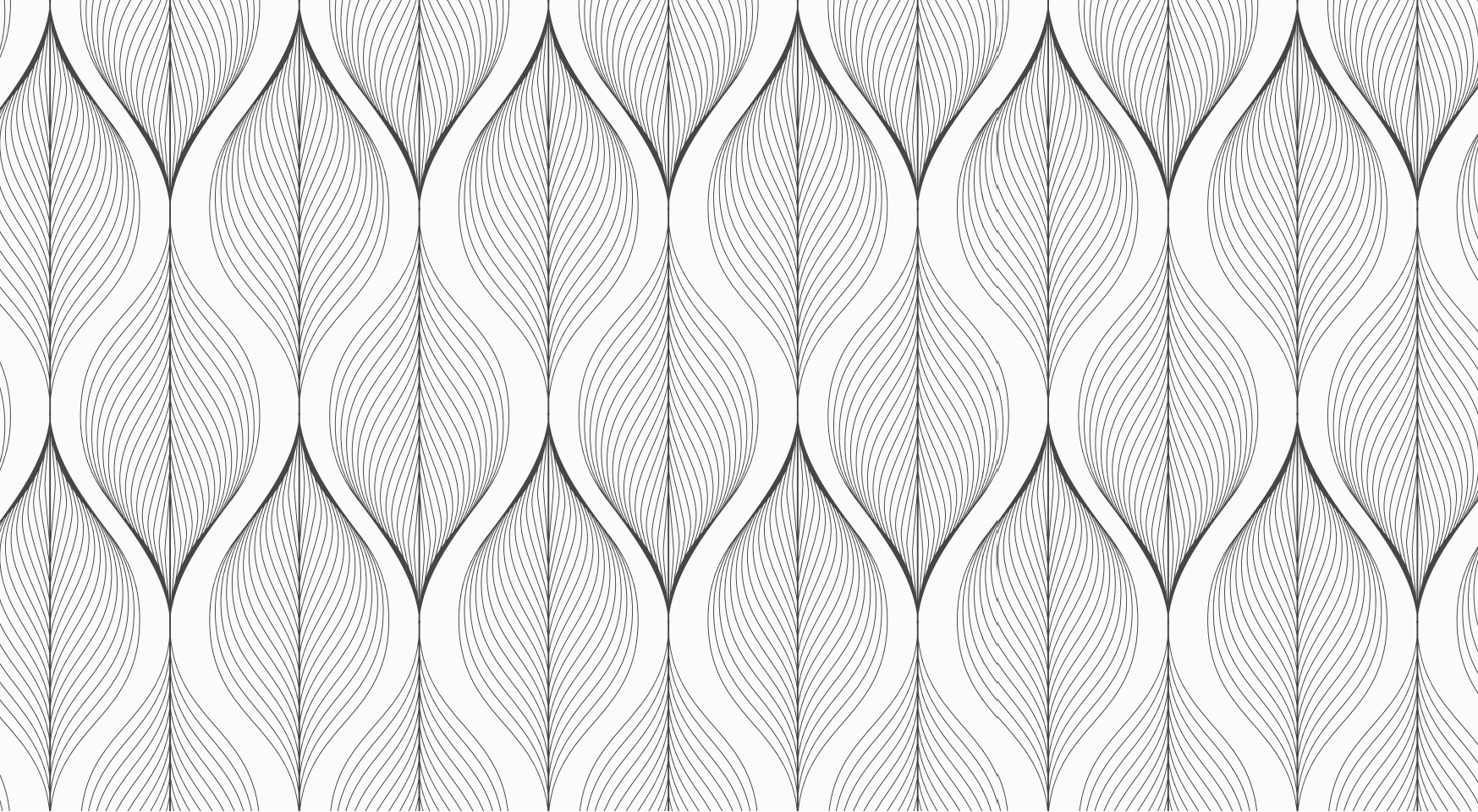


만 점 의 생 각



서론 1 수능 국어는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서론 2 거시 독해란 무엇인가?
서론 3 기본적인 개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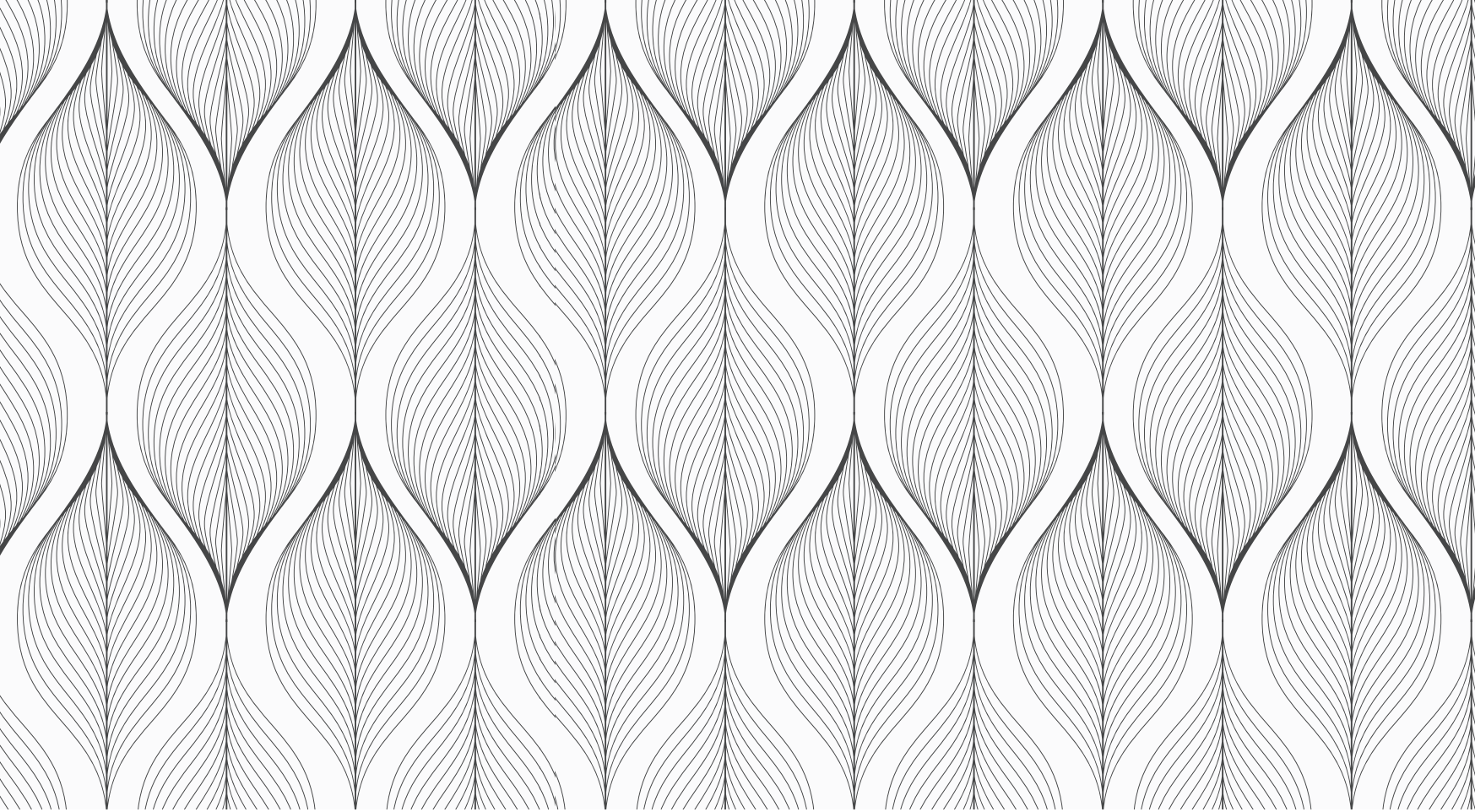
부록 1 비판형 문제 특강
부록 2 2021학년도 수능 분석

I 법/경제

- 01 2021학년도 6월 <법인세>
- 02 2020학년도 수능 <BIS>
- 03 2020학년도 6월 <미시/거시 건전성>
- 04 20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2011학년도 수능 <채권>
- 05 2020학년도 9월 <점유/소유>
- 06 2021학년도 9월 <행정 입법>
- 07 2017학년도 9월 <사단/법인>

II 인문

- 01 2022학년도 예비시행 <동일론>
↳2014학년도 수능B <이원론>
- 02 2020학년도 수능 <베이지주의>
↳2017학년도 수능 <과인/포퍼/논리실증주의>
- 03 2019학년도 수능 <가능세계>
↳2015학년도 6월B <정합성>
- 04 2018학년도 9월 <LP>
- 05 2018학년도 6월 <이기론>
- 06 2011학년도 수능 <뮤지컬>
↳2014학년도 9월B <예술의 형식>
↳2021학년도 9월 <예술의 정의와 비평>



Ⅲ 과학

FACT와 주장

- 01 2017학년도 9월 <칼로릭>
- 02 2019학년도 수능 <우주론>
- 03 2020학년도 6월 <개체성>
↳2007 MEET <진화생물학>
- 04 2016학년도 6월B <암흑물질>

건조한 서술

- 05 2017학년도 수능 <반추위>
- 06 2016학년도 수능B <항부력>

Ⅳ 기술

- 01 2020학년도 9월 <비콘>
- 02 2019학년도 9월 <STM>
- 03 2019학년도 6월 <키트>
- 04 2018학년도 6월 <DNS 스푸핑>
- 05 2017학년도 6월 <퍼셉트론>

서론 2

거시독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훌륭한 비문학 저자들은 글에서 한 번 쓴 단어를 다시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같은 어미나 조사, 접속사를 자주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고유명사나 전문 용어조차도 연달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을 사전적 의미는 다르나 문맥상 동의어인 단어들로 치환하여 계속해서 재진술을 하는 것인데 거시독해는 이런 단어들을 Chunking(덩어리짓기)하여 수백 개의 단어를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묶는 독해를 말합니다. 원 애긴지 감이 안 잡힐테니 예시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종합 예술의 기원인 그리스 비극은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 반면 근대의 오페라는 그 발전 과정에서 점차 아리아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심오한 지적, 도덕적 관심이 아니라 음악 내적 요소에 지배되는 경향을 띠었다.

-2011 수능 언어영역 23번 <보기>-

보기형 문제였지만, 미시독해와 거시독해가 완벽하다면 사실 <보기>만 읽고도 답이 나옵니다.

우선, 그리스 비극과 근대의 오페라가 대비된다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음악 내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물론 예술의 내적 요소는 수능이나 사설, EBS에 종종 출제된 개념이니 배경지식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문장 안에서는 그걸 몰라도 '형식적 측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의 <보기>를 제가 읽는 방식대로 바꾸어서 써보겠습니다.

종합 예술의 기원인 **그리스 비극**은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 반면 **근대의 오페라**는 그 발전 과정에서 점차 아리아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이 아니라 형식적 측면에 지배되는 경향을 띠었다.

어떤가요? 거시독해가 되면 내용을 한 층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량도 줄어 듭니다. 머리 속에서 내용이 정리되어 훨씬 간결한 글이 되기 때문이죠.

이 문제의 지문 첫 문단을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반면 현대의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 이는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보이시나요?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는 '내용적 구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외적 연관'입니다. 다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독해가 되는 사람은 주어지는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도 그 개념을 둘러싼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문을 완전히 흡수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지문의 첫 줄, 첫 문단입니다. 이걸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독해 능력에 압도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수능이 아닌 다른 언어 시험에서도 이러한 청킹이 사용됩니다. 2013 PSAT의 첫 두 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화 학습 시스템은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실현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현실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정형화된 규칙에 한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매우 큰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혼자 한번 해보실래요? 필요로 하는 '유연성'은 무엇인가요?

'유연성' = '자기 주도적'입니다. 두 단어 다 모르기 힘든 용어이나 '유연성'이 '자기 주도적'의 문맥상 동의어이며 단순한 재진술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나머지 문장들에서 개념 간의 관계가 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글에서 '문맥'을 이해한다는 것은, 또 '거시독해'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잇고, 문단과 문단을 이어서, 지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의미 덩어리로 흡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교재의 해설은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저술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 하나를 잡고 이해할 때까지 읽어보고, 개념들 간의 의미 관계를 확실히 잡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을 예시이자, 정답으로 생각하시고, 거시독해의 방법을 체화해서 이 교재 밖의 다른 지문들, 그리고 본인이 시험장에서 만날 글들에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북학과**

(가)

18세기 북학과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㉔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

[A] 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덕무는 『입연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㉕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㉖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변형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㉗ 자극하였다**.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그러나 청의 변형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북학과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㉘ 성행하였다**.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로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 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0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③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02 (가)의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로 간주하였다.
- ②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였다.
- ③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 ④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 ⑤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03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 ②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이다.
- ③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④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04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변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② 신용 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③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④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⑤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05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학의』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용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 우리나라는 해마다 수만 냥을 연경에 실어 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 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 오는 일은 없다.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

- ①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 ②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어.
- ③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 ④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변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 볼 수 있어.
- 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어.

0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드러난
- ② ㉡ : 생각하지
- ③ ㉢ : 그치지
- ④ ㉣ : 따라갔다
- ⑤ ㉤ : 일어났다

총평 및 간략 분석

1. (가)-(나)형 문제에 대해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2022학년도 예비 시행 세 번의 시험에서 모두 (가)-(나)형 문제가 출제되어, 이것이 신유형으로 등장하리라는 점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여지없이 수능에도 등장했죠.

유형 자체는 크게 색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이전의 수능에도 (가)~(마)형 지문이 존재했고, 단지 17-20 수능의 고난도 복합형 장지문이 사라졌다는 것이 이변이었을 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가)-(나)형 지문을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것입니다.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과거제' 지문은 과거제에 대한 찬성/반대의 입장을 (가)와 (나)에 각각 서술하면서, 둘을 이어서 읽었다면 해당 논의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9평과 수능은 그와 달랐습니다. 문학 문제를 풀 때처럼, (가) 읽고 (가) 나온 문제를 풀고, (나) 읽고 (나) 나온 문제를 푸는 편이 사실상 훨씬 접근이 빨랐을 것입니다. (가)와 (나) 모두를 읽어야 하는 것처럼 나왔던 <보기> 문제(이 책에서는 5번, 실제 시험지 20번)는 사실 <보기>만 제대로 읽어도 풀리는 문제였죠.

결과적으로, '(가)-(나)형 지문은 무조건 어떻게 나온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9평과 수능 문제만 본다면, (가)를 읽고 (가)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풀 뒤, (나)를 읽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 것이 나올 수 있겠네요. 다만 항상 사고는 유연하게. 수능날 어떤 형식으로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어휘력

문제 해설을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어휘력이 받쳐준다면 훨씬 접근하기 쉬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어휘력이 부

족하다고 느낀다면, 기출 문제에 나온 어휘들을 매번 사전을 뒤져가며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시중의 수능 국어 어휘 교재를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3. 거시독해와 미시독해

의미적으로 붙여 읽어야 하는 문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시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었다면 내용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일치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전부 선지의 표현을 지문과 다르게 바꿔놓아서, '이해'하지 못했다면 정답을 판단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역시나 기본적인 독해력, 피지컬, 즉 미시독해의 실력도 요구되었습니다. 단순히 '딱 한 문장'만을 제대로 독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총평

상당히 잘 쓴 글이었고, 선지의 정교함이 돋보이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생각한 학생들도 선지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01	02	03	04	05	06
①	④	⑤	③	④	③

(가)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 하였다.

북학파의 ‘북학론’이 제시가 됩니다.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는 이들이 북학파인 것은 알았는데, 지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려면 조금 더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북학파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입장)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북학론)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북학파들끼리도 각자 주목한 영역에 따라 북학론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그냥 북학론이라고 봐도 됩니다)에 다르게 반영되었다고 하니, **기반이 되는 ‘중화 관념’은 공통점으로, 반영된 결과(=북학론)은 차이점으로** 잡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북학파들이 공통적으로 ‘중화 관념’을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반영한 것은 맞지만, 반영된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 다를까요?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달랐으니까 차이가 생긴 것이죠.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박제가와 이덕무, 둘을 비교하는 지문이겠네요. 이들의 **차이점**은 ‘주목한 영역’과 그에 따른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일 것이고, **공통점**은 ‘중화 관념’, 그리고 어찌 되었든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

하자라는 입장일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단순한 현실x)>,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지향할 가치 기준)**이기도 하였다.

요 부분에서 나오는 ‘현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한 현실’과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입니다. 전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짜 현실이고, 후자는 특정 관점에 의해 선택되고, 추상화된 ‘가치 기준’으로서의 현실인 것이죠. 시험장에서 둘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구분했다면 일단 여기까지는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1문단에서 우리가 파악했듯, 그는 중화 관념을 받아들였습니다. 더하여 그는 **중화 관념의 절대성**도 인정하여,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중화와 합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북학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왜 ‘중화와 합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묘사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지향할 가치 기준’**으로서의 **‘중화’**였기 때문이죠. 2문단 전체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명-청 교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도, 박제가가 **‘명에 대한 의**

리'보다 '청을 수용하는 것이 주는 이익'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겼음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문제를 푸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학파인 박제가는 이익 추구를 긍정했습니다. 이전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었다면 충분히 추론 가능한 문장이네요.

이덕무는 『입연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묘사)하고자 하였다.

이제부터 이덕무의 얘기입니다. 박제가랑 비교하면서 읽어주세요. 첫 문장부터 박제가와 차이점입니다.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했다는데...

Q.1 '객관적 태도'는 박제가의 입장과 어떻게 대립되죠?

A.1 박제가가 묘사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주관적 현실'이었습니다. 이 차이점이 이후의 이덕무의 주장들과 연결됩니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박제가와 다르게, 청의 현실에 대한 비판도 들어가 있네요.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효용을 인정하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박제가가 청의 문물 수용이 주는 효용(이익)에 집중한 것과 마

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주장은 첫 문단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북학파들의 공통점이네요.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단순히 청을 찬반이라는 이분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청과 조선 모두의 가치를 인정했다네요.

Q.2 위 박스에서 나타나는 이덕무와 박제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A.2 박제가는 조선이 독자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중화를 기준으로 삼아 조선이 중화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덕무는 조선의 가치도 인정했으므로, 아마 조선이 무조건 중화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은 아닐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독자성)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즉 청을 배우는 것(⇐배타적 x)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청과 조선은 구분)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과 조선은 구분'된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2문단에서 박제가가 부정했던 조선의 '독자성'을 인정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사람은 조선의 풍토에 맞추어 살면 되며, 무조건적으로 청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둘이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청을 배우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박제가와 달리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여, 스스로의 객관적이고, 이용후생에 집중하는 북학론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입장도 가졌다네요.

(나)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나)는 (가)보다는 내용적으로 가볍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가)에서 북학론의 배경 역시 18세기였죠. 이때 중국은 국내 교역도 활발하고, 장거리 교역의 상품도 확대되었으며, 상인 조직이 발전하고 신용 기관이 확대되는 등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냥 건조하게 쪽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이 경제적 번영의 원인이었다는데, 사실상 은을 매개로 한 과세 덕분에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었으니, ‘대외 무역의 발전’에도 ‘은의 유입’이 영향을 끼쳤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이전까지는 청의 번영에 대해서만 서술되었는데,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무렵부터 청이 하락하기 시작했네요. ‘심각한 내외의 위기’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혹시 ‘연행’ 뜻 아시나요? 죄 지어서 끌려가는 그 ‘연행’이 아님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연행되었던’으로 서술했겠죠. 여기서 ‘연행’은 ‘사신이 중국의 수도에 가던 일’입니다(참고로, 17수능 고전시가 ‘연행가’도 같은 ‘연행’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뜻을 몰랐더라도, 지문의 북학론은 18세기의 입장이라는 점과, 보조사 ‘도’를 통해 ‘연행’을 ‘활동’, ‘등장’ 등으로 통쳐서 읽었다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하였다.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청이 겪게 되는 ‘내부의 위기’, ‘여러 문제’가 제시되는데, 이 공

통적인 원인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제시됩니다. 후에 반란 또는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될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인구 증가로 인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통치자들도 변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에 의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통치자들도 '심각한 내외의 위기'를 어느정도는 느끼고 불안했음이 나옵니다. 이런 '불안'이 원인이 되어,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고 시도하죠. 다만 18세기 후반(시간적 배경을 한정)까지는 앞서 얘기했던 위기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고, 단지 '위기의 씨앗'들, 징후만이 어느 정도 드러났음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0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③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정답 : ①

(가)에서는 박제가와 이덕무라는 두 학자의 견해가 비교됩니다. 따라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와, ‘견해 간의 차이’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첫 문단에서 파악할 수 있듯, 두 학자 모두에게 ‘**중화 관념**’은 인식의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두 견해의 공통적인 배경은 ‘중화 관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박제가의 북학론은 ‘조선이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밀바탕**이 된 것이고, 이덕무의 북학론은 ‘평등 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가 **바탕**이 되었으니, **이 두 배경은 차이점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문의 ‘**밀바탕**’, ‘**바탕**’이라는 단어가 ‘**배경**’이라는 선지의 단어와 의미적으로 연결됨을 파악할 수 있는 어휘력을 지녔다면 훨씬 빠르게 선지를 골랐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설

- ② 이덕무의 한계가 (가)의 마지막에서 제시되긴 하지만, 둘 모두의 ‘의의’와 ‘한계’를 직접적으로 비교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것이 ‘역사적’ 의의 또는 한계인지도 애매합니다.
- ③ (나)에서는 하나의 시기(19세기에 접어들 무렵=18세기 후반)만 제시되었으므로, 시대별 기준에 따라 사회상을 분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대별 기준’이라면, 둘 이상의 시대가 제

시되어야 합니다.

- ④ (나)에서 18세기 후반 중국의 번영과 위기가 제시되지만, 이것이 ‘**사상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번영**은 ‘은의 유입’ 등으로 인해, **위기**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나타난 것이죠.
- ⑤ (가)는 관대하게 해석한다면 중국이 조선이라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지입니다.

< Comment >

이런 ‘글의 구성’ 문제는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한 선지들이 나오는 것이 전통적이었지만, 최근의 ‘글의 구성’ 문제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가지고 답을 골라낼 수 있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 역시 어휘력을 기반으로 문장을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문 분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지의 어휘를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본인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02 (가)의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다.
- ②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였다.
- ③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 ④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 ⑤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정답 : ④

박제가는 청의 현실을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덕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언급이 없기에 틀렸다’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맞힐 수도 있었겠지만, 이덕무가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다는 문장에서 정답을 명확하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청=만주족 같은 외형**’이었고, 이는 이덕무에게 ‘비통한 감정’을 일으킨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한편 그에게 ‘**중화=명**’이고, 의리를 지킬 대상이므로 긍정적인 것이죠, 따라서 이덕무는 당시의 청나라를 중화라고 보지 않았으며, 명에 대한 의리를 바탕으로 청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덕무 역시 청 문물의 효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던 복학파이므로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했다는 부분은 무리 없이 지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

- ① 박제가는 청의 현실이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중화는 절대적인 것이니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 청의 현실과 조선을 합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청의 문물 도입이 중화를 이루는 수단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박제가의 입장에서 청의 현실은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며,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청의 현실과 합치되어야 하니, ‘얼마나 청과 유사한가’가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③ 이덕무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한 조치를 ‘민생과 무관’하다며 지적 및 비판했으므로,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⑤ 첫 문단에서부터 우리는 ‘중화 관념’을 둘의 공통점으로 잡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박제가와 이덕무 둘 다 ‘중화 관념’을 중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제가가 청이 중화 관념을 유지했다고, 이덕무는 유지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차이점이었죠. 선지 ④의 포인트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 Comment >

이 문제는 ‘**내용일치**’ 유형이 아닙니다.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죠. 선지의 표현을 대부분 지문과 다르게 바꾸어 놓았기에, 둘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읽지 않았다면 접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2021부터 국어 비문학의 트렌드는 ‘이해’임을 여실히 보여 준 문항입니다.

03 **평등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 ②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이다.
- ③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④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정답 : ⑤

문장 독해를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3문단의 딱 한 줄,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로부터 선지 ⑤의 문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과 조선은 구분된다'는 내용은 박제가 부정했던 '독자성'을 긍정하는 내용이고,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내용은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미시독해를 요구한 선지입니다.

해설

- ① 이덕무가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 ②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은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므로, 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 ③ 청과 조선의 가치를 모두 인정한 것은 맞지만,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자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선지 ②의 해설과 마찬가지로, 이덕무는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긍정했습니다.
- ④ 이덕무에 대해서는 맞는 선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제시한 '평등권'이라는 인식 태도에서 벗어난 내용이지요. 따라서 '평등권'에 대한 이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Comment >

앞선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문맥상 동의어'를 판단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 선지는 미시독해로 해결되지만, 나머지 선지를 지우기 위해서는 거시독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04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② 신용 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③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④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⑤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정답 : ③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 여러 문제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기의 내용입니다. 반란의 위험성이라든지, 부정부패 같은 문제들은 모두 '인구 증가'라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죠.

해설

- ①, ② '위기'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므로 '번영'과 관련된 선지는 지워내야 합니다.
- ④ 이주나 농경 집약화는 '조정'이 아닌 '민간'의 노력이었습니다.
- ⑤ 원인과 결과가 잘못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의 약화는 인구 증가로 인한 이주 및 도시화가 원인이었고, 관료 사회 부정부패의 원인도 인구 증가가 원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회적 유대의 약화'가 '부정부패 심화'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둘 다 인구 증가의 결과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 Comment >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은 이것보다 훨씬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17 9월의 칼로릭 문제나, 21 9월의 행정입법 문제 등으로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권합니다.

05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학의』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조선은 국내 교역이 활발하지 않음

(2) ...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조선과 다르게 이익 추구를 긍정하는 모습

(3) ...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냇을 연경에 실어 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 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 오는 일은 없다.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
⇒거래의 대가로 은을 사용하지 않고 약재 또는 비단을 사 오는 조선에 대한 비판

- ①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 ②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어.
- ③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 ④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 볼 수 있어.
- 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어.

정답 : ④

<보기>의 마지막 부분(3)은 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조선을 비판하는 것이므로, 은의 효용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의 효용을 간과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설

- ①, ② <보기>의 (2)에서 나온 이익 추구를 긍정하는 청의 모습은 [A]의 주장과 일치하며, 이러한 청의 현실은 박제가의 북학론의 근거가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③ (2)의 묘사는 (나)의 첫 문단에 나타난 경제 번영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 ⑤ <보기>에서 (나)에서 지적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배층의 부정부패나, 그들의 불안도 마찬가지죠.

< Comment >

<보기> 자체는 지문 (가), (나)와 유기적으로 엮어 읽을 수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다만 정답 선지인 ④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보기>의 마지막 부분만 보고도 골라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보기> 문제는 점점 쉬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0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드러난
- ② ㉡ : 생각하지
- ③ ㉢ : 그치지
- ④ ㉣ : 따라갔다
- ⑤ ㉤ : 일어났다

정답 : ③

해설

- ④ '과세가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면 과세가 발전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과세'가 '발전의 자극'보다 먼저 일어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따라갔다'면,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뒤집히게 됩니다.
- ⑤ '성행하다'는 크게 유행하는 것으로, 이미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면 '일어났다'로 표현을 바꾼다면, 그 시기에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